

## 성과관리 3대 축을 내실화하기 위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박홍근 장관, 성과관리 3대 축\*의 신뢰성·실효성을 갖춘 제도개선 주문
-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 도출을 위한 “성과관리 개선 TF”를 출범, 연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예정

\* ①재정사업평가, ②성과목표관리, ③기금운용평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수) 재정 전문가와 함께 재정사업 평가·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 등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넘어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7.1일(수)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석: 기획예산처 장관,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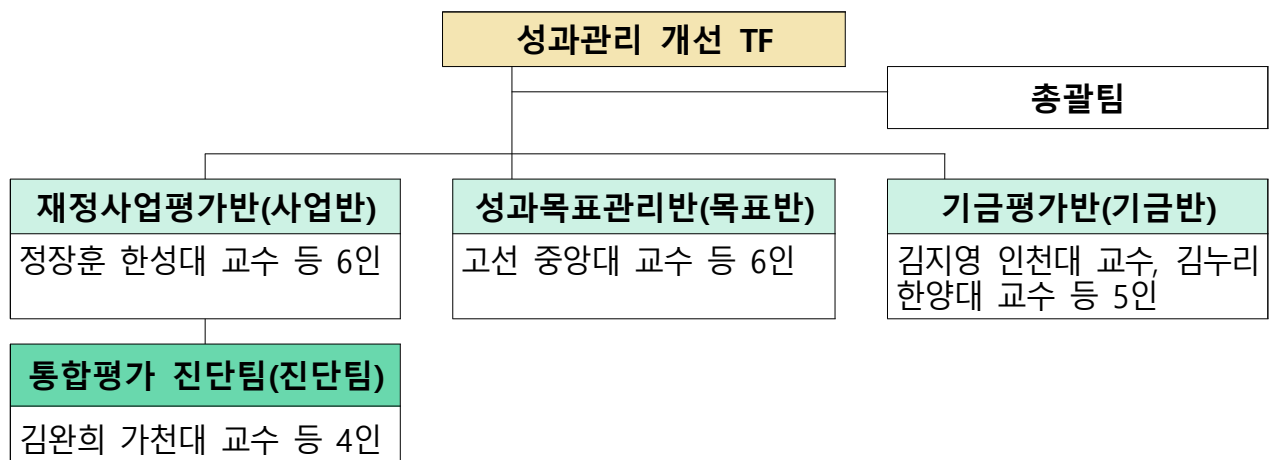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성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 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가 성과 중심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고 하며,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행된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각 제도별 3개의 작업반(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진단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7~'31)」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성과관리 개선 TF 구성안 >



담당 부서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4-3210)
		담당자	서기관 조문경 (keepangel88@korea.kr) 사무관 한정연 (jyhan03@korea.kr)
	통합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만구 (044-214-32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재정성과제도팀	책임자	팀 장 이승도 (044-214-3350)
		담당자	사무관 황지은 (andante2004@korea.kr)

